KOICA
한국국제협력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gether KOICA

2020
vol.3

특집

코로나19
코이카와 함께 극복합시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위하여 1991년 설립된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입니다. 코이카는 전 세계 44개 사무소를 기반으로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별프로그램(프로젝트·개발컨설팅), 글로벌 프로그램(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양성사업·글로벌연수·국제기구협력·민관협력사업·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인도적 지원(재난복구지원·긴급구호),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NGO, 기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이카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인권·환경·질병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 기관
코이카가 이루어나가겠습니다.



Together KOICA

2020 vol.3

<Together KOICA>는 코이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소식지입니다.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코이카가 전하는 전 세계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Together KOICA>는 모바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미경
등록일자 1994년 12월 5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20-03-245

발행일 2020년 9월 14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KOICA 국민소통실
제작·인쇄 (주)성우애드컴

코이카 뉴스레터 <Together KOICA>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은 대한민국의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08



26


50

KOICA Live

06 키르기스스탄이 품은 무한한 가능성이 움트다
키르기스스탄 팹랩 비슈케크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질적 향상 사업

08 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담보하다
필리핀 지역보건인력 역량강화사업

12 국내 산림 복원 기술로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 숲을 살리다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 숲 복원 시범사업

14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은
전통 방식 물 공급 시스템으로 시원한 물을 되찾다
아제르바이잔 IOM 물 공급 시스템(카흐리즈) 구축 지원사업

16 우리 기술이 캄보디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한다?
캄보디아 이러닝 플랫폼 크메르 아카데미

18 "코이카와의 파트너십요? 10점 만점에 10점이죠!"
보건의료 전문 NGO (사)메디피스

22 코이카와 함께 미얀마의 푸른 내일을 그려요!
환경 전문 공익 재단 환경재단

특집 코로나19

24 감염병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국제공조의 중요성

26 코로나19, 코이카와 함께 극복합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코이카의 노력

28 "고마워요, 코이카(KOICA)!"
협력국 곳곳에서 K-방역이 달린다

32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
해외 파견 '글로벌협력의사'가 들려주는 세계 각국의
COVID-19

36 페루에서 코로나19 예방교육과 공중위생 캠페인 진행
코이카 봉사단원 123기 장창현 간호단원

38 코이카 연수를 통해 쌓은 역량으로 르완다의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르완다 냐마타 국립병원 병원장 윌리엄 루타겐과

40 구전 문화 요소가 엿보이는 세네갈의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KOICA People

42 공정한 발주와 입찰로 개발협력을 뒷받침하다
코이카 조달실을 소개합니다

44 코이카 동창회 남미 권역 회장 & 페루 동창회 회장
기에르모 신노 후아마니

46 한국과 사랑에 빠진 파라과이 동창회 회장
비비아나 마리아 란도 마이어

48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의 살아 있는 역사
하응옥투이 차장

50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가장 빛나는 발견
코이카 예산기획실 차은주 실장 & 배우자 발드미르 드
제주스 페레이라

KOICA Lounge

54 강제 집콕러, 진성 집순이 모두 모여라
<Together KOICA>가 추천하는 제3세계 영화를 소개합니다

56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결혼 풍습으로 살펴보는 세계 각국 '부부의 세계'

58 세계 과자 대전
맛있는 세계 초코 과자를 찾아서!



키르기스스탄이 품은
무한한 가능성이 움트다

키르기스스탄 팹랩 비슈케크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질적 향상 사업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있는 내륙국으로, OECD 기준 중저소득국에 속하는 국가다. 키르기스스탄이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변 국가에 비해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국의 일자리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아 인구의 10%인 약 100만 명이 해외로 나가는 등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부족할뿐더러 그에 따른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글 남지연 **사진** 코이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식 공간

코이카(KOICA)는 디지털 제조 교육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관 협력 사업으로 서울국제친선협회(SIFO), 타이드 인스티튜트(TIDE)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팹랩 비슈케크(FabLab Bishkek)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질적 향상 사업'(2019~2021)을 진행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첫 번째 팹랩(메이커 제작 공간)인 팹랩 비슈케크는 공공도서관처럼 누구나 찾아와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비닐 커터, CNC 라우터, Table CNC, 아두이노 등의 디지털 제작 장비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사물과 시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팹랩 비슈케크는 해당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제조 교육 및 기술 기반형 메이커 문화 확산을 통한 취 ·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창의 기반의 디지털제조교육 확산 및 전문성 제고, 디지털 제조 교육 수료 후 취 · 창업 수요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팹랩 비슈케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꿈

한편, 현재 교통건축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베가임 씨는 팹랩 비슈케크에서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수 제작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다. 건축을 전공하고 있어 주로 핸드 드로잉이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수업이나 과제가 많지만, 선천적으로 왼손에 장애가 있어 생활은 물론 학업에도 어려움이 컸다.

이에 베가임 씨는 팹랩 비슈케크의 의수 제작 워크숍 참여자로 선정되었고, 의수 제작 과정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직접 의수를 만들어 착용할 기회를 얻었다.

"직접 의수를 만들 수 있다는 소식에 워크숍에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준 코이카와 팹랩에 매우 감사합니다. 그간 한 손으로 묶기 불편해 매번 짧게 자르기만 하던 머리도 이제 예쁘게 기를 수 있고, 팔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 입지 않던 반팔 옷도 맘껏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의수 제작 워크숍 제1호 수혜자인 베가임 씨는 팹랩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 앞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의수 제작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바라던 꿈이 현실화되는 공간

비슈케크는 키르기스스탄 현지 수요에 맞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디지털 제작 공간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표준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외부 인력 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현지에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간 운영과 관리 유경험자 및 전문가와의 협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제품 제작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별, 나이, 종교,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공간. 팹랩 비슈케크는 꿈을 꾸는 모든 키르기스스탄 사람에게 팹랩 디지털 제조 기술을 이용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 될 것이다. 창업의 발판이 되는 것은 물론 훌륭한 인재 배출에 기여할 키르기스스탄 팹랩 비슈케크. 앞으로 그곳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한다.









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담보하다

필리핀 지역보건인력 역량강화사업

필리핀 중심지에서 떨어진 불라칸은 도심에서 거주하다 밀려난 이주민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질환은 경제적 궁핍을 더욱 촉진하고,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코이카(KOICA)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손잡고 지역보건인력 역량강화사업에 뛰어든 이유다.

글 이경희 **사진** 사단법인 캠프 제공

지속성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경민 교수가 가장 처음 꺼낸 말이다. 코이카와 함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 불라칸 지역에서 '지역보건인력 역량강화사업'을 펼친 이경민 교수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해외 개발협력 활동이 대부분 외부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 바,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 사업의 출발 지점이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필리핀 불라칸 지역은 도심 재개발 정책으로 도심에서 밀려난 주민들의 거주지였다. 특히 강제 이주된 이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민들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데도 적절한 정보를 얻거나 진료를 받지 못했고, 이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해외 개발협력 활동에는 그 선의로 일어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체 서비스 역량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게 그중 하나이지요. 지역 내 역량 강화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불라칸 지역을 수차례 방문한 이경민 교수는 이 지역에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이 사업이 이 지역에 필요한 일인가. 둘째, 사업 내용을 실천할 여건이 되는가. 셋째, 주민들을 교육했을 때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는지와 있다면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불라칸에서 2016년부터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사업이 시작됐다.

현지 주민, 교육을 통해 달라지다

사업 목표는 명확했다. 우선 장기 목표와 3년 단기 목표를 세웠다. 장기 목표는 지역사회 내 보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역량을 지닌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3년간 코이카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팀이 기획하고 진행한 것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었다. 이들이 숙고 끝에 만든 교육 커리큘럼에는 현지 주민이 직접 참여했다.

전체 지역 주민이 10만 명, 그중 보건의료 활동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몇천 명, 또 그중 리더가 수십 명 있는데 그들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다.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양성된 리더는 각자 자기 동네로 돌아가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했고, 그 영향력은 주민 전체에게 효과를 일으켰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교육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진료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정보를 알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진료가 80%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것은 뇌수술 같은 전문 의학 기술을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줬다는 겁니다. 역량을 지닌 지역 인재들이 보건 문제를 80%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아는 지식과 실행 기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혈압 환자를 위해 혈압을 재는 게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병원에나 가야 할 수 있는 것, 의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벽을 허무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경민 교수의 이 말은 불라칸 지역의 보건의료 이슈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다. 코이카의 이번 사업은 만성병, 즉 비전염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유는 사회에서 가장 임팩트가 큰,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NCD)이었기 때문이다.

필리핀 같은 중소득 국가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건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비전염성 질환이다. 이는 심장병, 뇌혈관질환, 암 등을 일으키면서 의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사망률 증가로 사회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불러온 것

불라칸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 사업의 효과는 놀라웠다. 불라칸 주립대에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으면 트레이너가 된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러워했고, 이는 수강생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열성을 효과적으로 고양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역량 강화 사업에 가장 중요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해외 개발협력사업을 하다 보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가 명백한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경민 교수의 말이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이 같은 성공에는 국제개발협력 NGO인 사단법인 '캠프'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불라칸 현장을 직접 연결해줄 수 있는 조직으로서 캠프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역량 강화 사업은 의사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가 영역에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주민을 직접 참여시킨다는 건 거의

시도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소개했을 때 주민들은 '그게 가능한가요?'라고 반문했어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사단법인 캠프 이철용 대표의 말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결국 이 사업에 동참했다. 불라칸에서 10년간 다양한 사업을 해오면서 주민들에게 전폭적 신뢰를 받아온 캠프가 적극적으로 나서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인터뷰 말미, 이경민 교수는 다짐하듯 다시 한번 힘줘 말했다.

"해외 개발협력 활동은 세계 시민으로서 개발협력국이든 후원국이든 동등한 이웃으로서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해외 개발협력을 국가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는다거나 우리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기획하면 그 사업은 결코 장기적이지 않아요. 개발협력 활동은 어디까지나 파트너십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건강은 깨끗한 환경에서 잘사는 선진국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일수록 국민의 건강 문제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코이카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사단법인 캠프가 하나 되어 필리핀 불라칸에 일으킨 새바람. 그들을 위한 지역보건인력 역량강화사업은 2018년 마무리됐음에도 여전히 지역에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속되고 있다.



국내 산림 복원 기술로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 숲을 살리다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 숲 복원 시범사업

와인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생산 국가, 품종, 빈티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특이하게 '코르크'를 보고도 그 와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코르크는 다른 마감 재료보다 비싼 편이어서 고급 와인에만 제대로 된 코르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르크는 무얼로 만들까? 코르크를 만드는 주재료는 코르크 참나무. 코르크 참나무에서 얻는 코르크가 가장 질이 좋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코르크 참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글 남지연 **사진** 코이카 튀니지 해외사무소

황폐화된 튀니지의 허파를 살려라

'튀니지의 허파'라고도 부르는 아인드라함과 젠두바 지역은 본래 울창한 코르크 참나무 숲이었다. 이곳은 튀니지 전체 산림의 11%를 차지하며 튀니지의 자연환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코르크 생산 등 각종 임산물 제공과 목축업 기반 제공 등 사회 · 경제적 중요성이 집약된 지역으로, 튀니지 주민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르크 생산 등으로 인한 인간의 산림 훼손과 산불로 숲의 황폐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코르크 참나무 숲의 면적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 튀니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숲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관련 지식과 기술력 부족으로 복원 시도가 매번 실패해왔다. 숲을 살릴 수 있는 기술력은 물론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시너지 효과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코이카(KOICA)와 튀니지 국립농수임연구소(INRGREF)가 (주)수프로, SK임업(주)와 함께 코르크 참나무 숲 복원에 나섰다.





과거 산불 피해를 입은 아인사이다 지역에는 갱신 벌채(새로운 임분을 만들기 위해 기존 임목을 베어내는 것)와 식재 보존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보식(심은 식물이 죽거나 상한 자리에 보충해 심는 것)과 집약적 관수(필요한 물을 대는 것) 작업을 적극 실시해 생존목을 늘려갔다.

사업의 결과는 성공적이다. 코르크 참나무 평균 활착률* 75%를 달성했고, 현대식 양묘장 종묘 6억5,000만 본을 생산할 수 있는 야외 생육 시설을 축조했으며, 스프링클러 시설 및 관수 반자동 시설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종묘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더불어 양묘장 운영관리 교육 및 매뉴얼을 제작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량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종자 저장소를 구축해 종자 발아율을 88% 이상으로 끌어 올렸으며, 곰팡이류 침입이나 병충해로 인한 종자 손상을 방지하고 온도, 습도 조절이 가능하게해 종자 감염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 옮겨 심거나 접목한 식물이 제대로 산 비율. 심은 수에 대해 살아난 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산림 복원, 튀니지 최초의 민관 협력사업

울창한 숲을 만들었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성과도 있다. 바로 튀니지 주민들의 역할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현장 인부'로서 그저 지시를 따르는 일방적 방식으로 복원 사업에 투입되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추진한 것이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목적, 추진 계획,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튀니지 최초로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설명회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주민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부 기관과 협조해 주요한 결정을 함께했다. 산림 복원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반 정리, 조림, 관수, 울타리 설치 작업 등을 진행했고, 이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도 이어졌다.

울창한 코르크 참나무 숲을 되찾다

코르크 참나무 숲의 파괴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도 이를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튀니지. 매번 숲 복원에 실패해온 튀니지가 코이카와 손잡고 노력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은 '튀니지 최초로 성공한 대규모 코르크 참나무 숲 조성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튀니지 당국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 역시 얻을 수 있었다.

현재 튀니지에서는 애초 계획대로 코르크 참나무 활착률을 8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식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여름철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를 견뎌낼 수 있도록 관수와 참나무 보호 등의 노력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곧 과거처럼 울창한 코르크 참나무 숲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은 전통 방식
물 공급 시스템으로 시원한 물을 되찾다

아제르바이잔 IOM 물 공급 시스템 (카흐리즈) 구축 지원사업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을 위해 코이카(KOICA)가 나섰다. 전통적인 물 공급 시설인 카흐리즈를 복원해 아제르바이잔에 물을 되찾아준 이야기를 소개한다.

글 남지연 **사진** 코이카 아제르바이잔 해외사무소

카흐리즈, 아제르바이잔의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되다

고대 이래 물길을 따라 인류 문명이 발전해온 것처럼, 물은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하다. 이에 고대부터 사람들은 식수 공급원을 만들어 그 물을 마을로 끌어오고자 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건조 · 반건조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물 사용이 곧 물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선조들은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취수량 범위 안에서만 취수할 수 있는 물 공급 시스템인 '카흐리즈'를 구축했다.

카흐리즈는 친환경 물 공급 시스템으로, 지하수를 모아 완만한 경사의 지하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었다. 기본 구조는 지하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수로를 따라 물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일정 구간마다 우물 형태의 구멍을 뚫는 것이다. 이는 지하수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으로, 취수를 위해 그 어떤 연료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은 식수, 가정용수 그리고 농업용수로 공급된다.

이렇게 구축한 카흐리즈 기술은 지난 2,700년 동안 계속되어왔으며, 4개 대륙 내 40개국에서 발견되어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주로 쿠라강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20개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에만 400여 개의 카흐리즈가 있다. 카흐리즈는 지하수를 합리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으로 자연과 양립하며 지속 가능한 균형을 이뤄왔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깊이 파거나 전기 펌프 같은 현대 기술을 이용해 취수했고, 그렇게 카흐리즈는 잊혀져갔다. 이후 인위적으로 진행된 과도한 취수로 지하수가 감소하면서 지하수 우물은 말라버렸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카흐리즈 역시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Get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다

이런 아제르바이잔의 상황에서 국제이주기구(IOM)는 수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바로 카흐리즈라고 판단, 199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와 인근의 건조 · 반건조 지역에서 카흐리즈 복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163개 이상의 카흐리즈를 복원해 농촌 지역 2만여 가구에 가정용수 및 관개용수를 공급했다.

코이카도 카흐리즈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IOM과 함께 '아제르바이잔 카흐리즈 수자원 공급 시스템 복원사업'을 시행, 농촌 지역 마을에 수자원 공급을 확대해 물 부족으로 인한 국내외 이주 방지 및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당시 6,246가구 3만1,147명에게 안전한 식수와 관개용수를 제공했으며, 관개 용지 면적은 470ha에서 3,525ha로 7배 이상 증가했다. 1일 수자원량 역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며 2012년 'Energy National Award'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리고 2018년, 이 같은 우수한 사업 성과를 토대로 코이카는 2차 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카흐리즈 복원을 위한 단편적 사업이 아닌 체계적인 기초 조사를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자체 기술 역량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카흐리즈 복원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후 카흐리즈 물 공급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과 더불어 카흐리즈 엔지니어와 기술자 역량 강화, 실향민 농촌 공동체를 위한 관개수로 정비, 실향민 거주 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소규모 비즈니스 시범사업 추진, 그리고 카흐리즈 시스템의 확산 및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카흐리즈 시스템은 3만 여 명에 이르는 아제르바이잔 실향민의 물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아제르바이잔의 식수 접근율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와 자연 재난에 적응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적합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기술 보급과 확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아제르바이잔의 독특한 문화유산 중 하나로 가치를 인정받는 카흐리즈를 복원하며 소중한 아제르바이잔의 문화유산을 되살린다는 의미도 지닌다.

전통적인 물 공급 시설인 카흐리즈 복원사업은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향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코이카는 IOM과 손잡고 아제르바이잔의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기술이 캄보디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한다?

캄보디아 이러닝 플랫폼 크메르 아카데미

지난 4월 9일, 사상 최초로 등교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 개학을 한 우리나라처럼 이웃 나라 캄보디아에서도 휴교를 실시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3월 13일 휴교령 발표 후 3월 16일부터 휴교를 시행했고,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현재 휴교령이 무기한 연장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휴교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캄보디아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글 남지연
사진 코이카 캄보디아 해외사무소

코이카는 다 계획이 있구나!

지난 2013년, 코이카(KOICA)는 캄보디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ICT 역량 강화를 위해 핀테크 전문 기업 웹케시글로벌(주)(이하 웹케시글로벌)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IT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비해 IT 교육 인프라는 턱없이 열악한 캄보디아에 소프트웨어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센터를 설립해 캄보디아의 ICT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HRD 센터는 '기술 인력 양성', '연구 인력 양성', '창업 지원'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인력 양성에 매진했다. 그 결과 HRD 센터 졸업생들의 역량을 통해 캄보디아는 ICT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나아가 자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그리고 현재, 당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사업 1단계 진행 중에 개발된 이러닝 플랫폼 '크메르 아카데미'가 코로나19 사태 속 캄보디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가정 내 컴퓨터 보급률이 낮고 유선 인터넷 사용에 취약한 환경이지만, 모바일 인터넷의 경우 가격이 저렴해 보급률이 높은 편이다. 프놈펜 고교생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웹케시글로벌은 이런 캄보디아의 환경을 고려해 모바일 앱을 개발, 대부분 학생(주로 7~12학년)은 모바일 앱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유튜브 등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

웹케시글로벌 글로벌경영관리부 황정원 부장은 크메르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으로 "6,0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꼽는다. 크메르 아카데미는 현지 크메르어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이러닝 플랫폼 중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은 동영상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또 JAVA, Web, 모바일, 서버, DB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이카, 캄보디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다

현재 크메르 아카데미는 7~12학년 학생들의 수학 · 과학 · 물리 · 화학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학년에 상관없이 활용이 가능한 ICT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크메르 아카데미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그 때문에 기존에는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이나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이 활용하거나, 혹은 교사들이 수업 보조 도구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는 3월 20일부터 학생들에게 크메르 아카데미를 활용하도록 안내했고, 이에 사용자 수는 올해 초 17만7,000여 명에서 2020년 4월 기준 19만 명으로, 약 1만3,000명이 증가했다. 또 하루 접속자 수도 200명 수준에서 최대 500명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의 ICT 부서 담당자 소크 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령은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동안 중도 탈락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런 시기에 실시하는 이러닝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에 크메르 아카데미는 캄보디아 내 다른 이러닝 플랫폼과 다르게 캄보디아 현지어로 강의하는 데다, ICT와 언어 교과목을 포함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앞으로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는 캄보디아 내 해당 이러닝 플랫폼 활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활용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며, 웹케시글로벌과 함께 크메르 아카데미 사이트를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이웃 나라 캄보디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하며 전 세계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코이카. 누구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코이카는 오늘도 동분서주 중이다.





"코이카와의 파트너십요? 10점 만점에 10점이죠!"

보건의료 전문 NGO (사)메디피스

(사)메디피스(이하 메디피스)는 국제보건에 특화된 활동을 하는 전문 NGO 단체다. 2009년에 출발해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메디피스는 그간 코이카(KOICA)와 다양한 국제 보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왔다. 이들이 2018년부터 코이카와 손잡고 피지에서 수행 중인 '디지털 보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은 어떤 것일까? 메디피스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자.

글 이경희 **사진** 장병국, (사)메디피스 제공

오직 보건의료에만 집중하다

대한민국에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NGO 단체가 있다. 메디피스는 이 중 보건의료로 특성화한 국내 최초의 단체다. NGO들이 경제개발, 지역개발, 자립 지원 등을 묶어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는 메디피스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특별한 정체성이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며, 국제보건 활동을 실천하되 비종교 · 비정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색이나 정치색 없이 수혜자를 선정하는 데 공평한 접근 방법이라는 의미지요. 보건의료에 집중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기본적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도주의 가치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메디피스 국제보건협력사업부 이태범 부장의 설명이다.

메디피스가 코이카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출범 초기인 2010년부터다. 이후 코이카와의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각각의 역할에 대한 강점과 효율성이 분명했던 덕분이다.

"협력 기관으로서 코이카와 파트너 기관이 서로 필요한 이유는



각각의 강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이카는 정부 기관으로서 가지는 강점이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협의, 수원국의 정책 전략 파악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봉사단원을 수십 년간 파견해온 경험에서 비롯된 강점이 있지요. 한편 메디피스는 NGO로서 현장 실무와 정책 사이의 빈 곳을 메워주는 액터로서의 활동에 강점을 지녔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원들이 현지 코워커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가의 역할을 할 수 있지요."
김세현 책임간사가 코이카와 메디피스의 역할 분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준다.



프로젝트로 시너지를 내다

현재 피지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보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은 코이카와 메디피스가 다년간 쌓은 노하우와 협력 시스템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는 것으로 코이카 피지 사무소와 피지 보건부에서 기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메디피스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봉사단이란 일반 봉사단과 달리 여러 명의 단원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단신으로 센터에 파견을 가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지요."

피지에서의 보건의료 사업은 당연히 피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보건 문제와 직결된다. 현재 피지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꼽히는 것은 만성질환이다.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질병에 대한 진단 미비와 기초 지식 부족으로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 당뇨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식단 정보를 받고 정기검진을 통해 관리하지만 피지 주민들은 자신이 당뇨를 앓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발을 절단할 지경이 돼서야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하루 평균 3명이 당뇨로 발을 절단한다고 하니 피지 내 만성질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피지 보건부는 이를 위해 피지 국민의 식이, 흡연, 운동 등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하면 단순히 의사소통을 떠올릴 수 있지만, 본 프로젝트에서 일컫는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순환하고 공유하는 모든 채널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파견한 봉사단원들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TV, 라디오, SNS, 게임 출시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인구가 89만 명밖에 되지 않는 섬나라여서 인구 밀집도가 매우 낮은 환경에서 비용 대비 확산 효과가 빠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코이카와의 행복한 협업

이제 중간쯤 온 프로젝트 사업이지만 변화는 확실히 감지되고 있다. '역량 강화' 하면 보통 현지 대상자에게만 집중되는 반면, 이 사업은 코이카 봉사단원의 역량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단원들의 역량 강화에는 프로젝트 봉사단의 플랫폼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일반 봉사단과 달리 교육과정에 직무 교육이 포함되어 메디피스에서 공중보건 및 프로젝트 활동 특성에 맞는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는 아직 C4D(Communication for Development)라고 하는 개발협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데, 본 프로젝트 아래 활동하는 단원들은 그 누구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5개 보건의료 기관과 보건부에 파견된 단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조금씩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만성질환 클리닉 운영 지원, 지역 주민 아웃리치 활동을 지원하는 보건소 단원, 학교보건팀 데이터 관리, 교육 자료 제작 지원, 건강 교육용 모바일 게임 개발, 보건 정보 순환을 위한 인스타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는 보건부 파견 단원들의 역할은 향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피지 주민들의 건강 행동 개선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메디피스는 피지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 코이카와의 협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10여 년 전 처음 사업을 함께할 때만 해도 발주처와 수행 기관의 느낌이 강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파트너십의 색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파트너 기관을 대하는 코이카의 태도가 점점 개방된다는 느낌입니다. 피지 프로젝트의 경우 피지의 코이카 사무소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한 팀처럼 동료 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양 기관이 서로의 실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다 보니 수행 활동의 질도 높아지고, 저희도 더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 능률이 좋아지면서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메디피스의 보건의료 사업은 늘 종료를 앞둔 기존 사업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엇갈려 찾아든다. 그 분주한 상황에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다. 코이카와의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 내용을 최대한 발전시켜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현지인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메디피스는 그간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일차 보건의료 프로젝트만 수행했다면 지금은 단순한 보건 프로젝트는 물론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도 맡고 있어요. 분야는 보건의료 하나지만 세부적인 범위는 넓어졌고, 그로 인해 수행하는 사업의 질적 향상, 다양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도를 통해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사람들이 모인 메디피스.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뛰어난 전문성으로 보건의료 지원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그들이 있기에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은 오늘도 행복하다.



코이카와 함께 미얀마의 푸른 내일을 그려요!

환경 전문 공익 재단 환경재단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 재단인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 이래 국내외에서 환경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특히 2019년부터는 코이카(KOICA)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얀마 샨주 소수민족 마을에 에코 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해 초록빛 땀을 흘리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미얀마의 친환경 마을을 가꿔왔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글 이현수
사진 김희진, 환경재단 제공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 재단이다. 아시아의 기후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환경 및 사회문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 설립 당시에는 환경문제에 대해 기업과 정부 지자체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환경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정태용 처장이 환경재단의 설립 취지를 설명한다.

코이카와 환경재단이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글라데시에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던 환경재단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정부, 기업이 손잡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협력 방법을 찾던 중 코이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코이카와 환경재단은 각각 강점이 다릅니다. 코이카는 정부기관으로서 개발협력 관련 예산, 인프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재단은 현지 NGO와의 원활한 협력이나 해당 국가에서 도움이 절실한 낙후 지역을 찾아내는 데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코이카와 환경재단이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각자의 강점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하고 상생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시작해 벌써 2년 차에 접어든 미얀마 에코 빌리지 조성 사업 역시 코이카와 긴밀히 협력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땅에 온기를

미얀마 에코 빌리지는 미얀마 샨주 내 3개 마을 차웅넷, 예찬콩, 와치마웅에서 에너지 접근성 및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환경재단이 다년간 쌓은 지식과 코이카의 개발협력 노하우가 합쳐져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황폐해진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설비를 지원하는 일이다. 무분별한 개간으로 훼손된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은 환경 파괴를 막는 것은 물론 지하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환경재단은 주민들과 함께 매년 0.3ha의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 작년에도 어김없이 이를 진행해 6월에 400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9월에도 723그루의 아보카도 과실수를 심었다. 특히 단순히 묘목을 배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유기농 비료로 자연과 공생할 방법까지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 에너지 빈곤 지역인 이곳에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을 위해 우기에 빗물을 저장해두었다가 건기에 활용할 수 있는 빗물 저장 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완공하면 총 585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주거 환경은 물론 보건위생도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주민들은 새벽에 왕복 두세 시간에 걸쳐 물을 길어 와야 하는 데다, 이마저도 물 양이 충분하지 않아 불편이 큽니다. 현재 빗물 저장 장치 공사는 70%가량 진행되었으며, 공사를 완료하면 물 긷는 데 쏟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 미래를 위한 교육 및 주민 주도적 시스템 마련

둘째는 주민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일이다. 환경재단은 서울환경영화제를 열었던 노하우를 살려 '무비나이트'라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는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 환경 관련 주민 교육도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는 제도권 교육에서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 주민들은 환경문제에 매우 낯설어합니다. 게다가 문해율(文解率)이 높지 않아 지식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이해도에 맞춰 교육의 단계를 천천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재단은 현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며 역량을 키우도록 독려하고 있다. 에코 빌리지 사업의 최종 목적은 주민들이 '에너지', '수자원', '토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직해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마을 위원회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과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기후변화 취약 지역인 미얀마의 에코 빌리지 사업은 비단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세대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선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재단과 코이카는 이곳에 푸른 숲과 초록빛 생기를 되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감염병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국제공조의 중요성

글 코이카 국제질병퇴치기금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지구촌을 혼돈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 국민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평소 같으면 인파로 붐볐을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황량함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지구촌은 감염병이 더 이상 어느 한 나라 혹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14년 에볼라출혈열 등 국경을 넘어선 신종 감염병의 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 2014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30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이 출범했다. GHSA는 감염병 예방, 탐지, 대응 분야의 국제공조와 국가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다.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보건안보 위협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에는 WHO가 채택한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의 인적, 물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가속화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GHSA 가맹 10개국으로 구성되는 운영 그룹(Steering Group)의 일원으로서, 한국 질병관리본부, 미국 질병관리본부 등과 더불어 글로벌 보건안보 의제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캄보디아와 가나의 감염병 관리 ·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실험실 인프라 지원과 관련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해 협력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현재 코이카(KOICA)에서는 외교부의 위탁을 받아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2007년 혁신적 개발 재원의 일환으로 도입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변모하면서 국내 유일의 국제 감염병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금이 탄생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말라리아, 결핵, HIV 등 주요 3대 질환 퇴치 활동뿐 아니라 에볼라,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혹은 진단 기기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해 지구촌 세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글로벌 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백신면역연합(GAVI) 등 글로벌 보건 분야 주요 파트너와 함께 감염병 논의에 참여해 글로벌 보건 분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신종 감염병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인적 · 물적 이동이 자유로운 세계화 시대, 우리 국민의 보건안보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뢰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만이 신종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보건 선진국 주도로 감염병 예방, 탐지, 대응 분야 국제공조를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강화하면서 저개발 국가들이 국제보건규칙이 제시하는 수준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코로나19, 코이카와 함께 극복합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코이카의 노력

코이카(KOICA)는 한국보다 더 열악한 의료보건 환경에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감염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글 남지연 **사진** 코이카



지역사회를 지키는 코이카

먼저 코로나19 사태 초반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 · 경북 지역과 주변 지역사회, 그중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쪽방촌 주민, 노숙인, 이주 노동자, 재가 독거노인,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대구 취약계층 시설 10개소에 마스크 4,000장과 손 세정제 400개를 전달하고, 코이카 임직원 성금 약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또 코이카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코이카 연수센터를 개방했다.

코이카-귀국 봉사단원 다시 힘을 모으다

이 외에도 코이카는 대구 ·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 활동을 마치고 국내 귀국한 월드프렌즈코리아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펼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총 48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집되었으며, 지난 3월 12일 페루 간호 봉사단원 출신으로 현재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에 재직 중인 박정미 직원이 간호 분야 자원봉사자로 첫 파견되었다.

박정미 직원은 "처음 발생한 상황,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코이카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돌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해도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나 변수, 미처 대비하지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고 동료들과 의기투합한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라며 자원봉사자로 파견된 소감을 밝혔다.

4월 24일부터는 귀국한 월드프렌즈코리아 봉사단이 경상북도 칠곡군에 파견되어 학원, 교습소, 코인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시설의 방역을 지원하기도 했다.

개발도상국을 지키는 코이카

코이카가 기존에 추진한 보건사업이 협력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코이카가 작년 1월 베들레헴에 건립한 '팔레스타인 국립 약물중독 재활치료센터'를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건 및 수용 시설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의 여건상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초 의료 설비가 완비된 이 센터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춘 시설이었던 것이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현지 보건 역량을 고려해 코이카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시 귀국이 이뤄졌지만 협력국 곳곳에 파견된 의료 분야 봉사단원들은 2월부터 현지 파견인력, 교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법 및 손 씻기 교육, 건강 캠페인을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또 현지에 남아 있는 글로벌협력의사들은 파견국 재외공관, 코이카 해외사무소와 공조하며 코이카 파견인력은 물론 우리 교민, 협력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전히 힘을 쏟고 있다.

파트너와 상생하는 코이카

코이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개발협력사업 파트너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품 수급 차질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변경 계약, 동일 기능 타 품종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하고, 신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를 현지에 송금하기 전 선집행을 승인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업 파트너, 시민사회, 봉사단원 및 국민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충처리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포함한 해외 안전 정보도 코이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코이카 파견 인력과 파트너 기관에 정보 제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협력국의 안전이 곧 대한민국의 안전

코이카는 '협력국이 안전할 때 우리가, 우리가 안전할 때 협력국이 안전하다'는 신념 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 지구촌이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감염병은 한 국가, 한 사람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모두가 협력하고, 또 그 안에서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때 퇴치가 가능한 것이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글로벌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제사회, 협력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내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고마워요, 코이카(KOICA)!"

협력국 곳곳에서 K-방역이 달린다

글 이현수 사진 코이카

만사 일장일단(一長一短)이다. 자동차, 열차, 선박, 비행기 등 교통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는 일일 생활권이 되었지만 감염병 확산에는 취약해졌다.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의 충격에 이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유행하기도 했다. 2014년 3월 기니에서 시작한 에볼라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퍼졌고, 1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한국은 1만km 이상 떨어진 아프리카의 보건안보가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신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나섰다. 그 첫걸음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협력사업이었다. 미국은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50개국과 함께 2014년 GHSA를 출범시키고 전염성 질병 탐지,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11개 행동 과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코이카는 이전부터 추진해온 보건사업과 더불어 GHSA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며, 개발도상국 전염병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왔다. 그리고 코이카의 지원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개발도상국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



캄보디아
체계적 정비로 방역 기초 체력을 기르다

20년간 이어온 내전과 그로 인한 가난으로 국가 핵심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해 빈곤율이 높은 캄보디아. 전국 차원의 감염병 '예방-탐지-대응' 체계가 미비해 감염병 유입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감염병을 탐지해내는 역량도 취약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코이카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국제개발처(USAID), 캄보디아 보건부가 힘을 모았다. 질병 관리 분야에서 시급히 개선할 점을 예방접종, 보건인력 양성, 국가 실험시설 개선 등 세 분야로 정리해 유기적으로 지원을 추진했다. 그 결과 1,535개 마을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69명의 현장 역학조사관을 양성했으며, 28개 주립병원 내 실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개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사업을 통해 현장 역학조사관 양성 프로그램을 마치고 졸업한 25개 지역 역학조사관 69명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감염 사례 발굴, 접촉자 감염 여부 검사, 접촉자 추적, 1차 접촉자 격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의 접촉자를 추적하고 27건의 감염 사례를 발굴했으며, 이 외에도 감염병 예방 교육 캠페인, 바이러스 표본 수집, 주요 가이드라인 개발, 최전선의 의료진 교육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칸달주 지역보건국의 건강증진부에서 5년째 근무 중인 2차 간호사이자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코이카가 지원하는 GHSA 역학조사관 양성 프로그램의 졸업생인 스나에 디렁 씨는 "현재 코로나19 피해 지역에서 환자 의심 사례와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신속대응팀 요원들에게 접촉자 추적 조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칸달주 지역보건국과 지역사회의 많은 기대와 적극적 협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으며, 코이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나와 같은 역학조사관이 더 많이 양성되길 바란다"라며 역학조사관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가나
현장 역학조사관 맹활약 중!

적도에 한없이 가까운 나라인 가나 역시 코이카의 파트너십에 힘입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가나는 과거 에볼라 창궐을 경험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전염병 관리와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실감, 이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하지만 진단 기기, 운영 인프라, 인력 등 기본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쫓기듯이 콜레라, 황열 등의 질병에 대응하다 보니 전염병 대응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작업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었다. 이에 코이카가 감염병을 조기 진단하고 확산을 막아낼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코이카는 2019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협력해 가나 북부 지방 공무원을 9개월간 중급 현장 역학조사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 이론과 현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수료식을 가졌다. 이는 올해 초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 대응에 주효했다. 현재 졸업생 15명 중 14명이 추적 조사, 데이터 관리, 보건교육 등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 가나 공중보건 실험실을 개선했으며, 특히 2017년에는 감염병 대응을 교육할 타말레 에볼라 격리센터를 건립,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했다.

WHO의 세계 보건 규약에 의하면 인구 20만 명당 1명의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 코이카는 2023년까지 가나에서 역학조사관 60명을 추가로 양성해 국제 기준에 맞추고,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맹활약해 감염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 중급 현장 역학조사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현재 가나 어퍼이스트주 지역보건국의 보건정보책임자를 맡고 있는 조지 아코우와 씨는 "코이카의 중급 현장 역학조사관 프로그램은 역학 데이터 분석, 과학적 리서치, 보고문 작성 등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됐으며, 저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해 가나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코로나19 정보를 국내에 공유하고 검역 활동, 샘플 운반, 샘플 문서화, 접촉 경로 추적과 사례 지도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라며 역학조사관 프로그램 덕분에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우즈베키스탄
K-방역 노하우를 전파하다

카자흐스탄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우즈베키스탄 역시 그동안 코이카와 함께 감염병 대응 및 국제공조 체계를 개선해온 덕에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코이카는 그간 우즈베키스탄의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인력 인프라를 확충하며 감염병 관리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일조해왔다. 중·장기 역학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해 '진단-역학조사-치료-수술'의 과정으로 이뤄진 유기적 관리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데 힘썼으며, 주요 감염병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시설과 첨단 진단 장비를 지원해 감염병 발생 초기 단계에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미생물 진단 및 분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말라리아 퇴치라는 눈부신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번 해 초부터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코이카가 전문 인력을 국가 자문관으로 파견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도운 점이 인상적이었다. 지난 3월 중순경 우즈베키스탄은 K-방역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고, 이에 코이카는 예방의학 박사인 최재욱 교수를 정책 자문 및 컨설팅 전문가로 파견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 최고 결정 기구에 최 교수를 정책 자문으로 임명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으며, 예정보다 더 머물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제공조는 코로나19 방역에도 효과적이었던 것은 물론 상호 연대의 정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적 위상은 남다르다. 절대 빈국 상태에서 연명하던 입장에서 원조 공여국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이 불과 수십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다. 코로나19는 지구 반대편의 문제가 남의 나라 일이라는 데 그치지 않고 내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환기해준, 아프지만 소중한 기회였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코이카는 앞으로도 협력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감염병 확산으로 더 취약해지고 있는 해당 국가의 빈곤, 생계, 교육, 보건 문제 해결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

해외 파견 '글로벌협력의사'가 들려주는 세계 각국의 COVID-19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코이카(KOICA) 글로벌협력의사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 이에 협력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로부터 현지 상황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들어본다.

글 남지연 **사진** 글로벌협력의사 제공

글로벌협력의사의 역할

글로벌협력의사는 코이카의 해외 파견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국의 전문의가 협력국에 파견되어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나눠주고, 현지 의료인력의 역량 강화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글로벌협력의사는 파견 국가의 의료인력 교육, 코이카 파견인력의 안전과 건강관리 및 파견 국가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 세계, 그중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의 글로벌협력의사들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감염병과 관련해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이 없거나 대처시설조차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현지의 의료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글로벌협력의사는 현지 상황에 맞춰 코로나19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마음과 진심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네팔 **김병철** 글로벌협력의사



2017년 2월 코이카를 통해 네팔 글로벌협력의사(이하 글협의)로 파견돼 한국 네팔 친선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과 항문 수술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김병철 전문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코이카 파견인력과 교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투입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네팔 역시 공항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은 물론 장비조차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 현재 네팔 전역에 코로나19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설 역시 터무니없이 모자라다. 모든 의심 환자는 카트만두에 있는 열대병 전문 국립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지방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카트만두로 가라는 권고만 한 채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실정 탓에 네팔 현지 의료진도 만약 지역 감염이 창궐할 경우 네팔 의료 시스템이 심각하게 마비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에 김병철 글협의는 의료 대응 활동과 더불어 코이카와 주 네팔 한국대사관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대응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한국 NGO 단체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회의, 주 네팔 한국대사관 코로나19 대응 회의에 참여하며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김병철 글협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들며, 한국 역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도움의 손길을 나눠줄 것을 요청했다.

"네팔뿐 아닌 개발도상국의 미흡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두려움과 염려, 불안에 휩싸여 있는 세계인을 생각할 때,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 이들을 돕는 데 한국이 앞장선다면 단순히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뿐 아니라 세계인을 돕고 나눌 줄 아는 한국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이자 나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마음과 진심을 나눠주시는 여러분은 진정한 세계인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에티오피아 **윤창균** 글로벌협력의사

에티오피아는 진단 키트를 통한 코로나19 검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그 검사 시행의 수가 인구수에 비해 너무 적고,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으로 미뤄 앞으로도 확진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에티오피아에 파견된 윤창균 글협의는 안과 전문의로, 처음에는 코로나19에 맞서 본인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 함께 글로벌협력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유덕종 선생님과 함께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의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해가고 있다.

윤창균 글협의는 먼저 신속 진단 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약물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되었던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은 에티오피아에서 확보하기 어려웠기에, 그에 비해 효과는 떨어지지만 에티오피아에서 확보할 수 있고 말라리아 예방제로 이미 50년 이상 사용해왔기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클로로퀸을 서둘러 확보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K-방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에티오피아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은 물론 신용카드 이용률이 낮고, 인터넷 보급률 역시 낮은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의 대응 사례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 에티오피아는 서로 만났을 때 악수뿐 아니라 포옹을 하고 볼에 키스를 하며 5분 이상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좁고 낡은 집에서 '인제라'라는 현지 음식을 3대가 넘는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 나눠 먹고 먹여주는 문화가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코이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침을 홍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윤창균 글협의는 '협력국을 향한 마음의 여유'를 당부했다.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그래서 이번 사태로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 및 여러 대륙의 협력국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존폐 위기에 몰렸을 때 목숨을 걸고 와서 도와주었으며,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웠던 한빛부대의 한국 복귀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역시 어려움에 처한 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오승윤** 글로벌협력의사

2018년 11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국립 아유르베다 교육병원에 파견돼 현지인과 한국인 진료 및 현지 의사와 의대생 교육을 맡고 있는 오승윤 글협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의료 상담과 더불어 코이카를 통해 전달된 의료 구호물품 자문을 진행하고, 전 세계 글협의와 각국의 현황과 대응책을 공유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리랑카 역시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듯 3월 초부터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즉각적인 통금, 공항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국립감염전문병원 외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축소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속되는 통금에 대한 피로감과 경제적 이유로 통금을 해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잘 지키는 등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다행스럽게도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교민과 코이카 필수 인력 중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쉽게 항공편이 확보되어 초기 대피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한국 정부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처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승윤 글협의는 이제 한국이 많은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를 도울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처의 모범 국가입니다.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다른 많은 국가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이 코로나19를 신속히 종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해낸다면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당신의 삶을 지켜라"

페루에서 코로나19 예방교육과 공중위생 캠페인 진행

코이카 봉사단원 123기 장창현 간호단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다. 이런 속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귀국 전까지 코로나19 예방교육과 공중위생 캠페인을 펼쳐 페루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페루 우아누코 제4차 한-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창현 간호단원이 그 주인공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박수인 사진 장창현 제공

Q 장창현 간호단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7월 월드프렌즈코리아 코이카 해외봉사 단원으로 페루에 파견돼 페루 우아누코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및 공중보건 관련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장창현입니다.

Q 페루 현지 의료기관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지 의료기관은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 있으며, 민간으로는 사립병원과 클리닉이 있습니다. 의료 수준은 양호한 편이지만, 의료비가 비싸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술은 불가능하고 진료, 진단 검사, 약





처방 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사업으로 지은 보건소는 페루 전역에 총 열 곳이 있습니다.

Q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해 감염 방지 교육과 공중위생 캠페인을 실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감염병 대처 경험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는 2015년 전 세계에 메르스가 유행하던 당시에 의무병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소식을 모니터링하고 200명이 넘는 부대원을 대상으로 발열 환자 체온 측정, 개인 마스크와 손 소독제 보급, 문 손잡이 소독, 손 씻기 및 감염 예방 수칙 배포, 사령부 자문 요청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도 과거 경험을 살려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미는 손으로 식사를 하고, 악수와 뺨을 비비며 인사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는 등 감염 경로가 다양해 공중위생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즉시 스페인어로 된 포스터를 제작하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포스터에는 '당신의 삶을 지켜라'라는 문구를 넣어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지요. 또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본부, 페루 보건부 및 코이카 사무소의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손 씻기 6단계 및 기침 예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Q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제4차 한-페 병원 대상 현장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희 병원에 등록된 지역 주민 5만2,555명을 대상으로 제4차 한-페 병원 응급의료 체계 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해 지역 주민의 공중보건 의료 혜택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응급실은 외부와의 연결 통로가 없어 적시에 환자를 치료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의료기자재와 시설이 부족해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무소에 보고해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사업을 신청했고, 사무소와 본부의 심의에 통과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페루에서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65세 이상 고령자들께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마을 곳곳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와 함께한 활동을 실천 중이라고 말해주십니다. 그럴 때면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봉사단원에 불과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이나 손흥민 선수같이 저를 가슴 뛰게 하는 많은 사람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문화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팝 행사와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고, 한옥 응급실을 건축하고, 한복을 입고 패션쇼에 참가하는 등 계속해서 한국을 빛내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코이카 봉사단 지원을 희망하거나 혹은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해 국제사회에서 동반자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통해 국제사회가 여러분의 무대라는 것을 깨닫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성취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이카 연수를 통해 쌓은 역량으로
르완다의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르완다 냐마타 국립병원 병원장 윌리엄 루타겐과



2014년 코이카(KOICA) 연수생으로 한양대학교 국가 보건 정책 역량개발 과정에 참여해 석사학위를 수료한 뒤 르완다로 돌아가 감염병 전문가로서 공중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 윌리엄 루타겐과 씨. 현재 르완다의 냐마타 국립병원(Nyamata District Hospital) 병원장을 맡고 있는 루타겐과 씨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르완다의 상황은 어떤지, 코이카가 르완다에서 펼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 남지연 **사진** 코이카 르완다 해외사무소, 윌리엄 루타겐과 제공

Q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르완다 냐마타 국립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는 윌리엄 루타겐과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서 코이카 연수생으로 국가 보건정책 역량개발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Q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 르완다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까지는 코로나19가 정부의 관리 아래 잘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르완다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2명에 불과하고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역시 별다른 합병증 없이 잘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르완다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의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건강과 관련한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은 물론이고 확진자 추적과 기본적인 치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더 많은 지원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병원장님께서는 르완다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르완다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저희 병원에서 진단됐을 때, 부게세라시에 최초의 국립 격리시설을 설립했고, 저는 현장에서 코로나19 TF팀을 지휘했습니다. 이후에 격리시설이 치료 센터로 바뀌었고,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전반적인 활동은 계속해서 제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뿐 아니라 확진자 동선 추적이나 코로나19 선별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진단을 시행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이는 르완다의 모든 국립병원 병원장이 맡고 있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Q 코로나19와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코이카와는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르완다 보건부가 르완다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부 · 비정부 기관, 국내 · 국제 기관과의 강력한 협력을 요청할 때 코이카가 이에 동참했습니다.

코이카는 최근 르완다 생물의학센터*에 마스크 2,500개, 손 세정제 220개, 체온계 70개, 의료장갑 2,500개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 보건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도 코이카는 르완다에 계속해서 각종 의료 지원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의료물품 기증에 대해서는 코이카에서 제게 먼저 연락을 했는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저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르완다 생물의학센터를 대표해 현재 필요한 의료 물품과 방역 소모품의 수요를 확인해 코이카에 전달했고, 코이카는 또다시 저를 통해 의료 물품을 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이카의 활동에 대해 저는 정말이지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이런 의미 있는 활동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입니다.

* 르완다 생물의학센터: 르완다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처럼 현재 코로나19를 포함해 에이즈, 에볼라 등 르완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 전담 기관이다.

Q 2014년 코이카 연수생으로 한양대 국가 보건정책 역량개발 과정에 참여해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해당 과정이 병원장님께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2014년에 시작된 코이카와의 인연은 저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카 연수생으로 한국에서 국가 보건정책 역량개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중보건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를 통해 국가 보건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연수를 마친 후 르완다로 돌아와 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3개 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기회가 주어질 정도로 제 역량도 크게 성장했지요. 앞으로도 르완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코이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제게 주어진 역할을 치열하게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전에 돌입한 만큼 르완다 역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이카를 통해 한국의 혁신적 방역 체계와 감염병 통제 사례를 배움으로써 르완다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나가면 언젠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 각국, 특히 르완다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코이카와 한국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전 문화 요소가 엿보이는 세네갈의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아프리카 민속학자 아마두 함파테 바는 "아프리카에서 나이 많은 이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구전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특히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부르는 그리오(griot)가 공동체 내 구전 전통을 이어왔는데, 코이카(KOICA) 세네갈 사무소는 세네갈의 구전 문화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고, 이 그리오와 유사점이 많은 세네갈 대중 힙합 가수들이 음악을 통해 대중에게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사진 코이카 세네갈 해외사무소 영프로페셔널(YP) 이상은

세네갈 구전 문화의 뿌리, '살아 있는 도서관' 그리오

서아프리카 지역에 문자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그리오는 입에서 입으로 부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수해오며 집단의 역사 ·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 그리오는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를 띠는 왕국에서 존재하며, 왕과 같은 지도자 계층의 중요한 자문관으로서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여론을 수렴하거나 사회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해 사회 통합과 합리적 지배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리오는 이런 근엄한 자문관의 역할뿐 아니라 부족 공동체 내 모든 희로애락(출생, 결혼, 죽음 등)을 음악, 춤, 이야기 같은 공연예술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하는 유산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렇듯 그리오는 시대의 역사가로서, 예술가로서, 사회적 매개자로서 존재했다.



©African Griot Summit in New York, 2012
Photo-splintersandcandy.com

그리오와 세네갈 대중 힙합 문화

문자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공동체 내 구전 역사가로서 막대한 존재감을 자랑하던 그리오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그리오는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해 서아프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콘서트홀, 클럽 등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에 대한 정치 · 사회 · 문화 이야기를 노랫말이나 연기로 풀어내는 사회적 매개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오로 대표되는 세네갈 구전 문화 계승자들은 부족 공동체에서 여전히 역사가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서양 문화와 혼합되며 대중음악가로 발전되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세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오 문화와 세네갈 대중 힙합 문화 간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다.

세네갈 힙합 문화는 1980년대 말 엠시 리다(MC Lida), 압둘 아지즈 콜리발리(Abdoul Aziz Coulibaly)의 활동을 시작으로 세네갈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1990년대 초 다라 지(Daara Ji), 포지티브 블랙 소울(Positive Black Soul) 같은 그룹의 활동을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힙합 음악을 통해 '아프리카 민족의 존엄성'과 '아프리카의 통합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우고자 했다. 이들을 시작으로 세네갈 최초로 힙합 음악을 통해 정치 ·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피 프로이스(Pee Froiss)가 이내 등장하며 세네갈 힙합 문화의 부흥이 시작됐다. 2012년에는 래퍼와 기자로 구성된 그룹 옌 어 마레(Y'en a Marre)가 등장했고, 이들은 음악을 통해 정치적 비판의 목소리를 낼 뿐 아니라 청년층에 대한 투표 장려 캠페인 진행, 신식민주의 탈피 및 진정한 독립을 향한 열망의 목소리를 내는 등 대중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사회의 매개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구전 문화 요소가 엿보이는 세네갈의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2020년 상반기, 전 세계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네갈 역시 국가적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이런 비상시국에 세네갈 대중 힙합 가수들은 힙합 장르에 서아프리카만의 구전 문화 요소를 접목해 세네갈 사회에 코로나19 극복을 향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곡마다 구체적인 가사는 다르지만 요지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자는 내용과 더불어 세네갈이 빠른 시일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코이카 세네갈 사무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

한편 코이카 세네갈 사무소 역시 세네갈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기존에 진행 중인 세네갈 중부 지역 모자보건 체계 강화사업에 코로나19 대응 연계 사업 활동을 추가해 파틱, 카올락 지역에서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한 라디오 공익 방송 송출, 보건위생 물품 지원, 공중 보건시설 및 보건소 내 격리실 정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2일 화요일에 연수생 동창회(ALASCO)를 통해 다카르와 다카르 근교 4개 마을에 거주 중인 총 164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과 위생용품을 지원했다.

세네갈 대중 가수들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온 국민에게 전달하는 코로나19 극복을 향한 메시지와 코이카 세네갈 사무소의 지원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네갈 지역사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란다.



공정한 발주와 입찰로 개발협력을 뒷받침하다

코이카 조달실을 소개합니다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조달에 나서고 있는 조달실. 이곳은 코이카가 나아갈 길의 방향키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 강나은 **사진** 김희진

공정하게, 그리고 깐깐하게

1991년, 코이카(KOICA)가 설립된 후 우리나라도 개발협력에 있어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개발협력이 단순히 물품이나 금전적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 상생협력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에 조달을 하는 데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졌다. 조달은 물론 사후관리, 발주와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 · 환경성 · 공공성까지 다양한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조달실은 코이카 개발협력사업의 발주 기획과 관리를 도맡아 해 입찰 진행, 낙찰자 선정 그리고 계약 체결까지 수행한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기업 지원과 상생협력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조달실은 코이카 창립 초기부터 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로 시작해 2000년 중반에 조달실이라는 어엿한 이름의 독립 부서가 되었다. 이름만 달리했을 뿐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부서가 계속 이어질 만큼 조달실의 업무는 핵심 업무이기도 하다.

조달실은 크게 조달계약팀, 기술평가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한다. 조달계약팀은 각 부서의 요청 사항을 받아들여 발주를 넣고, 그 과정에서의 협의 과정을 주관한다. 즉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이를 알리기 위해 입찰 공고를 올리고 조달 시스템을 갖춘다. 이때 기술평가팀이 나서서 어떤 업체가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기술평가의 경우 과거에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 실시하다가 2012년에 기술평가반을 구성했다. 이후 팀으로 재구성되면서 기술평가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했다. 기술평가는 사업 수행사를 선정하는 한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입찰 참여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성,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기술평가단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그런 다음 낙찰업체가 결정되면 계약을 하고, 이후 요청했던 부서와 협업해 사업 수행 과정을 관리한다. 혹여 이 과정에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조달실이 다시 한번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렇다 보니 조달실은 '공정'이 생명이다. 계약을 좌지우지하는 역할로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날의 칼처럼 공정한 집행이라는 뒷면에는 깐깐하고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공존한다. 그런데도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에 의거하지 않은 평가는 수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가' 과정이 끝나면 그 결과물이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기술평가를 하는 데 언제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노력이 달리 해석될 여지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조달실 역시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보수적이라는 편견은 No!

조달실은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대담함도 갖추고 있다. 더욱 공정한 거래를 위해 코이카 공정 거래 모델을 수립하고, 표준계약서를 개선했다. 그 결과 2019년 12월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

또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계약 건별 대금지급 공개시스템을 도입하고, 코이카 해외사무소에서 진행되는 현지 입찰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입찰 대리인 서류를 축소하고 전자화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상생협력에도 나섰다.

공정경쟁이나 상생협력이 많이 강조되는 추세에서 조달실은 관련 제도 수립을 마치고 이제 이를 이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또 조달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도 계속 다듬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조달 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일환으로 기술평가를 할 때 기존에 받던 제본한 제안서 대신 CD로 받아 종이 없이(paperless)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은 어렵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정당성에 대한 가치를 높인다는 생각으로 코이카 전체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페루 광업부의 수장,
이제는 코이카 동창회 남미 권역을
이끌어갑니다

코이카 동창회
남미 권역 회장 & 페루 동창회 회장

기에르모 신노 후아마니

페루 관세청에 의하면 페루 수출 품목 1위는 광물로,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페루 에너지 광업부에서 차관을 지낸 데 이어 작년부터 페루 코이카(KOICA) 동창회 회장을 맡아 맹활약 중인 기에르모 신노 후아마니(Guilermo Shinno Huamani) 씨를 만나 한국과의 인연과 향후 활동 계획을 물었다.

글 이현수 **사진** 원상희, 코이카 페루 해외사무소 페이스북



Q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루 코이카 동창회 회장을 맡은 기에르모 신노 후아마니입니다. 저는 광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한평생 일해왔으며, 5년간 페루 에너지 광업부에서 차관으로 일했습니다. 2017년에 차관직을 내려놓은 이후 지난해 6월부터는 페루 코이카 동창회 회장을 맡아 하루하루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Q 하루를 꼬박 날아가야 한국에서 페루 리마까지 갈 수 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코이카와 언제부터, 어떻게 인연을 맺어오셨나요?

2010년 6월에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광업 분야 안전에 대한 연수를 받기 위해서였죠. 알찬 내용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페루 중앙정부에서



23년 동안 민간 기업들이 광물 분야 규제나 안전 규범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거나 관련 공공정책을 입안하는 일을 해온 저에게 꼭 필요한 연수였죠. 이후 2018년 10월에는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한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에 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여러 번 오간 것을 계기로 페루 코이카 동창회 회장까지 맡게 되었네요.

Q 한국의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제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방문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전에 다른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어 한국 방문이 새로울 게 없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동적인 분위기에 놀랐고, 그때부터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겨울 시즌에 한국에 왔는데, 다양한 곳을 방문했지만 어디를 가나 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날씨가 추운데도 사회 · 경제적으로 전혀 침체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Q 페루에서 코이카 동창회(APEBECO)가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이카 페루 해외사무소와 연계해 작년 6월에는 동창회 회원 20명과 함께 '나무를 심자' 캠페인을 벌였고, 8~9월에는 하천 정화 작업을 실시했어요. 이때는 65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빈민층 어린이 교육 관련 활동, 가정폭력 및 성폭력 여성 피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로 사업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활동하는 동창회 회원들이 있어서 뿌듯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커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한국에서 코이카 연수를 받은 페루 회원이 1,070명에 달하기 때문이지요. 참여율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아쉽습니다.

Q 그렇다면 향후 APEBECO를 어떻게 이끌어가실 계획인가요?

과거 페루 코이카 동창회는 안타깝게도 동창생 참여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꼭 동창생들을 독려해 높은 참여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두 가지 추진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회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회원 명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 부처를 일일이 찾아가 코이카 연수를 받은 분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열심히 활동하고 싶어 하는 신규 동창생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이들과 함께 올해는 바다와 하천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Q 오늘 코이카에서 열린 '2020년 제8회 동창회장 회의'에서 코이카 동창회 남미 권역 회장으로 당선되셨지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굉장히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네요. 사실, 이번 회의 덕분에 다른 국가들의 상황이 얼마나 제각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 방식이나 조직 구성은 물론 코이카 현지 사무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곳, 현지 사무소가 아예 없는 곳, 회원들 참여가 높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등 다채로웠습니다. 게다가 나라마다 추구하는 활동 방향이 다르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를 조율하는 게 숙제겠네요.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남미 5개 참여국의 힘을 하나로 합쳐 남미 지역 중 소외계층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을 위해 합동 봉사를 하는 등 뜻깊은 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반은 파라과이인,
반은 한국인이랍니다!



한국과 사랑에 빠진
파라과이 동창회 회장

비비아나 마리아 란도 마이어

"처음 한국에 방문한 뒤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한국의 역사와 음악, 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BTS를 좋아하는 팬(ARMY)이 되었네요!"
유쾌하게 자신을 소개한 파라과이 코이카(KOICA) 동창회 회장 비비아나 마리아 란도 마이어(Bibiana Maria Lando Meyer) 씨는 재기 발랄한 웃음을 보였다.

글 이현수 **사진** 원상희, 코이카 파라과이 해외사무소 페이스북

Q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올라! 안녕하세요. 파라과이 코이카 동창회 회장 비비아나 마리아 란도 마이어입니다. 저는 시스템 개발 분석가이자 2개의 TV 프로그램과 1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언론 종사자입니다. 동시에 코이카 동창회 회장 일과 적십자 봉사 활동도 하고 있어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맡은 책임이 워낙 많아 정신이 조금 없지만, 좋아하는 여러 종류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오히려 살아 있다는 기쁨과 생동감을 느낄 때가 많기에 분주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Q 지구 반대편의 한국 코이카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저는 시스템 분석가로서 파라과이 중앙 부처의 지원을 받아 2009년 전자정부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당시 정부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민대학교 장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력을 느껴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Q 처음 한국에 오셨을 당시 가장 놀란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시아에서 처음 방문한 나라가 한국인데,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파라과이는 그 거리만큼이나 삶의 방식이 정반대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시간관념입니다. 파라과이는 시간 약속이 유동적인 데 비해 한국은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죠. 이 외에도 한국 특유의 매력에 계속 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와 음악, 무용에도 빠지게 되었죠. 한마디로 한국과 사랑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BTS에 푹 빠져 있답니다.(웃음)

Q 파라과이에서 코이카 동창회(APABECO)가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역 발전과 봉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수도 아순시온에 위치한 중독예방센터 자원봉사 활동을 소개하고 싶어요. 파라과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을 복용하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벌어진답니다. 파라과이 코이카 동창회는 6~18세의 청소년 약물 중독자를 위해 장난감, 책, 야외 운동기구, 가구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알리며 약물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한 지 벌써 2년째에 접어드네요.

최근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파라과이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에요. 2019년 11~12월에 한국 문화에 대해 얘기해보는 '한국 문화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김치, 비빔밥, 김밥, 불고기를 많이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Q 파라과이의 언론인으로서 당신이 가장 관심이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여성의 권리 신장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TV와 라디오 방송에 여성 인권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토론 프로그램을 자주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여성 자영업자, 미혼모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파라과이 여성부에서 1년 전부터 아동 · 여성 학대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파라과이 여성 문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뿌듯한 마음이고, 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Q 이번 '2020년 제8회 동창회장 회의'를 통해 얻은 것과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더 간에 의견도 활발히 나누고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할 수 있었던 뜻깊은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0년 계획 수립도 확정 지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국가 간 협력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올해에는 이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세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할 생각이고, 파라과이에서 '엑스포 코리아'라는 한국 박람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음식에 집중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의 살아 있는 역사

하응옥투이 차장

"코이카 해외사무소 직원들은 모두 한국 사람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지 직원들은 해외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할까? 여기,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에서 두루 귀감이 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 코이카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협력 관계에 기여하고 있는 그를 만나보자.

글 남지연 **사진**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



Q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응옥투이(Ha Ngoc Thuy, 이하 투이)입니다. 2002년 2월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에 입사해 올해로 1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Q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를 소개해주세요.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는 1994년에 개소했고, 26년간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직업훈련 교육, 농업 · 농촌 개발 및 도시개발, 기후변화 대응, 공공행정, 물관리 및 보건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발협력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런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수많은 취약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면서 그 지역이 경제 · 사회적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Q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에서 신규 사업 발굴 지원, 공공행정 및 수자원 관리 관련 사업 모니터링, 한-베 통역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한국 드라마 번역으로 베트남의 한류 열풍을 이끈 주역이십니다. 어떻게 한국 드라마를 번역하게 되었나요?

코이카는 제 역량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코이카와의 인연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1999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일 때 한국어를 가르쳐주신 한국인 선생님이 코이카에서 파견을 온 한국어 교육 봉사단원이셨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한국 드라마를 번역해보지 않겠느냐며 제안해 주셨고, 그 후 약 10년 동안 200여 편의 한국 드라마를 번역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유리구두〉, 〈토마토〉, 〈가을동화〉,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대장금〉 등이 있어요. 많은 드라마를 번역하면서 한국어 능력도 키울 수 있었고, 더불어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Q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에 입사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어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던 차였습니다.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어 선생님께서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에 한국어가 가능한 베트남 현지 직원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근무하기 전에 미리 경험을 쌓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근무해보기로 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던 평소 제 목표와 너무나 잘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투이 차장님처럼 현지 직원이 해외사무소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근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사실 특별한 비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해외사무소에서는 저를 비롯한 현지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과 한국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이로 인해 서로가 더욱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현지 직원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Q 마지막으로, <Together KOICA>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이카 베트남 해외사무소에서 18년 동안 일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협력 관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고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 코로나19로 코이카 개발협력 사업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현재 코이카 해외사무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베트남사무소의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가장 빛나는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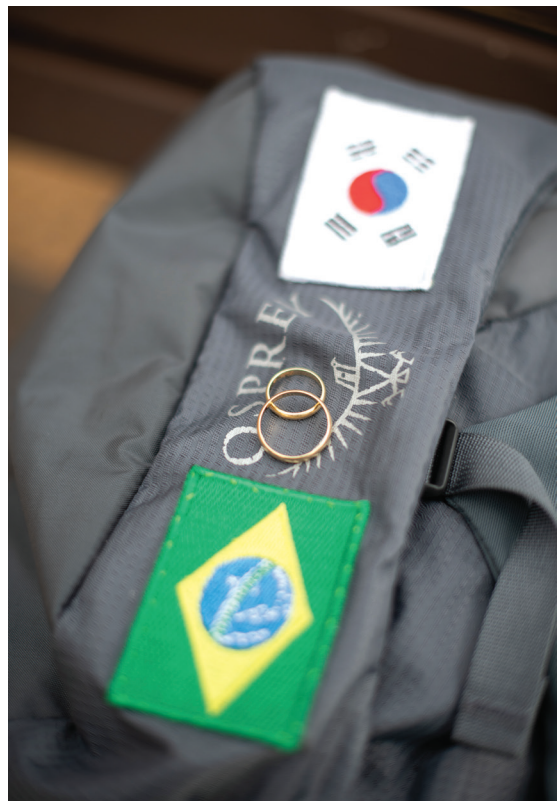
서로가 있기에 비로소 완전해진 우리

코이카 예산기획실 차은주 실장 & 배우자 발드미르 드 제주스 페레이라

인생이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물찾기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에서, 브라질에서 각각 태어나고 자란 남녀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서로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보물을 찾았다. 코이카(KOICA) 차은주 실장과 부군 발드미르 드 제주스 페레이라(Valdemir de Jesus Pereira, 이하 조아따Jota)가 그들이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콩고 강가에서의 첫 만남

뉘엿뉘엿 황금빛 해가 지는 DR콩고의 콩고강 주변. 치안이 불안해 차량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DR콩고에서 이곳은 유일하게 산책을 하고 조깅을 즐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위험한 상황 때문에 차만 타고 다녀 운동량이 절대 부족하던 차은주 실장에게 콩고강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곳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한 뒤 콩고 강가를 달리는 일은 그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남편은 콩고 강가에서 달리기를 하며 만났어요. 처음에는 오가며 눈인사를 나누다 나중에는 '오늘 얼마나 뛰었어요?' 하는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죠.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1층과 3층에 사는 이웃사촌이더라고요."

브라질 군인으로 DR콩고 브라질대사관의 치안을 위해 파견 나와 있던 조아따와 코이카 DR콩고 사무소장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던 차은주 실장은 2012년 7월 DR콩고에서 그렇게 처음 만났다.

둘 사이가 진지하게 발전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다. 차은주 실장이 휴가를 맞아 킬리만자로를 등반할 때 조아따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왔고, DR콩고로 돌아가자 너무나 반갑게 차 실장을 맞이하면서 두 사람은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진지한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조아따에게 당시에 왜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보냈냐고 묻자 "보고 싶었던 것 같다"는 짧고 굵은 답변이 돌아왔다. 흔히 브라질 사람 하면 삼바와 파티를 즐기는, 말하자면 '핵인싸'들의 집단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조아따는 진지하고 보수적이며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라고 차은주 실장이 슬쩍 귀띔해준다. 부산이 고향인 차은주 실장에게 DR콩고에서 만난 그가 처음부터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그런 성향 때문이 아니었을까.

함께 걷는 방법을 찾다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느낀 매력은 꽤 달랐다. 차은주 실장은 매사에 꼼꼼하고 세심하며 직접 요리를 해 먹는 조아따의 가정적인 모습에 빠졌고, 조아따는 함께하는 동안 '이 여자가 나를 완성시킨다(She completes me)'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남편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 전에 생각도 많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어떨지 주저하기도 하는데 남편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안과 밖이 똑같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러나 국제 커플이라면 으레 그렇듯, 두 사람은 곧 문제에 봉착했다. DR콩고에서 함께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겨우 1년 남짓. 그 뒤에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함께 있고 싶었던 이들이 선택한 것은 '결혼'이었다.

2014년 1월, 한국에서 결혼한 뒤 장거리 부부로 브라질과 한국을 오가던 이들은 마침내 조아따의 퇴역과 함께 한국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후 차은주 실장의 해외 발령으로 함께 세네갈로 이주했고, 2019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았다. 귀국과 함께 예산기획실에 발령을 받은 차 실장은 초반의 숨 가쁜 적응을 끝내고 이제 조금 여유를 찾은 상태다.

그렇다면 국제 커플로서 이 부부가 부딪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저희가 가장 크게 충돌을 빚은 것은 바로 한국의 '회식 문화'였어요. 브라질에는 일과가 끝나고 직장 동료들끼리 어울려 2차, 3차를 가는 문화가 없거든요. 회사에서 단합을 도모할 일이 있으면 근무시간 중 시간을 내어 간단하게 다과를 하거나 주말에 가족끼리 모여 바비큐 파티를 하는 문화에서 살아온 조아따는 퇴근 이후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는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조아따는 같은 맥락으로 야근을 하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이 낮에 일을 비효율적으로 한 게 아니야?"라는 남편의 물음에 차은주 실장이 발끈한 것도 문화의 차이 때문이었다. 브라질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양이 많으면 상사와 의논해 조절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부여되는 업무량이 많고 책임이 크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다. 부부는 이 같은 문제를 대화와 발상의 전환으로 풀어갔다.

"다행히 코이카는 회식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야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집으로 일거리를 가져와 일을 합니다."

아내가 코이카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한 조아따와 그런 남편을 배려하는 차은주 실장. 이는 부부가 찾아낸, 함께 걸어가는 방법이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아따의 하루 일과는 바쁘다. 오랜 취미인 달리기를 집 근처 탄천에서 여전히 거르지 않으면서 집안 살림까지 온전히 도맡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집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거렸다. 빈틈없이 각 잡힌 살림살이는 취재진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여기에 제철 과일로 담금주를 빚고, 케이크를 직접 구우며, 건강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까지 한다니 듣는 사람 모두 탄복과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남자가 여자보다 체력이 훨씬 좋고 손재주도 여자 못지않게 뛰어나다. 남자가 살림을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조아따는 실제로 취재진을 위해 직접 점심상을 차려주기도 했다. 멸치로 맛국물을 내고 애호박과 두부, 양파를 착착착, 숭덩숭덩 썰어 넣어 순식간에 된장찌개를 끓여낸 그는 살림 고수만이 가능하다는 '요리를 하면서 바로바로 치우는 내공'을 발휘해 요리가 끝났는데도 주방이 반짝거리는 기적(?)까지 보여주었다.

조아따와 차은주 실장은 둘의 삶을 놓고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달리기라는 공통 취미를 가진 덕분에 주말이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함께 참가하고 오리엔티어링을 즐기며 해당 지역의 명소와 맛집을 탐방하는 부부. 명절에는 꼭 부산 친정을 방문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조아따는 이때도 주방에 스스럼없이 드나들며 요리를 하고, 오갈 때마다 장모님을 꼭 안아주는 살가운 막냇사위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니 이들에게 이 이상의 행복은 없을 듯하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말하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낳고 자란 이들이 부부로 만난 인연은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가장 빛나는 발견이 아니었을까?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 사랑이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부의 사랑은 더욱 아름답다. 조아따와 차은주 실장이 함께하는 시간 시간이 바로 그러했다.

강제 집콕러, 진성 집순이 모두 모여라

<Together KOICA>가 추천하는 제3세계 영화를 소개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
제3세계를 다룬 영화들인데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내용이랍니다.**

글 남지연



사마에게 (For Sama, 2019)

다큐멘터리 | 2020.01.23. 개봉 | 영국
96분 | 15세 관람가
감독 와드 알-카팁, 에드워드 와츠
출연 와드 알-카팁, 사마 알-카팁,
함자 알-카팁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에서 태어난 생명. 영화 <사마에게>는 시리아 내전으로 폭음과 죽음만이 가득한 도시 알레포에서 태어난 아기 '사마'에게 엄마가 전하는 생생한 기록이다. 사마의 엄마이자 이 영화의 감독인 와드 알-카팁은 이 기록을 통해 자신이 왜 알레포에 남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에 대해 딸에게 이야기한다.

엄마가 아이에게 전하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된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그동안 접해온 내전이라는 이미지가 지닌 클리셰를 걷어내고 오히려 담담하게 현실을 그린다. 관객들은 내전으로 고통받는 인물의 아픔을 피부로 느끼며, 이런 작품이 세상에 나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라 평한다.

영화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과 핫독스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최초로 영국 독립영화상 작품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62관왕'이라는 타이틀로 화제가 되었다.

로마 (Roma, 2018)

드라마 | 2018.12.12 개봉 | 멕시코
135분 | 15세 관람가
감독 알폰소 쿠아론
출연 얄리차 아파리시오, 마리나 데 타비라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 촬영상, 외국어영화상 수상에 빛나는 영화 <로마>는 멕시코시티 내 로마 지역을 배경으로 한 중산층 가족의 젊은 가정부인 클레오의 시선을 따라 흘러간다. 1970년대 멕시코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풍랑 속에서 한 가정이 겪는 불화와 갈등, 그리고 사회적 억압을 담아내는 이 작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들이 유대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보듬으며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그린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유년 시절을 그린 자전적 이야기라고 알려진 작품으로, 남편 없이 네 아이를 키우게 된 여자, 모든 것이 서툴고 어린 아이들, 하층민에 속하는 원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모습을 담아낸다. 약자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가족이라는 연대감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애정 어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이야기.

가버나움(Capernau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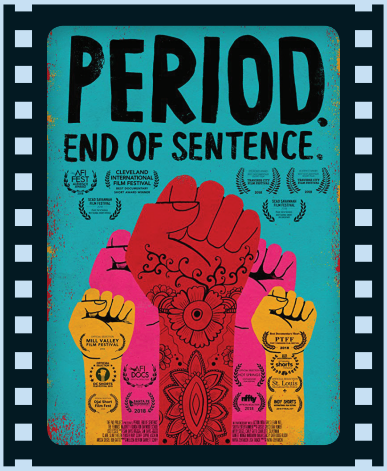
드라마 | 2019.01.24. 개봉 | 레바논 외
126분 | 15세 관람가
감독 나딘 라바키
출연 자인 알 라피아, 요르다노스 시프로우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어린아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슬럼가에서 태어난 12세 소년 '자인'은 사망한 여동생의 소식을 접하고 분노에 차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살인 미수 혐의로 교도소에 갇혔다. 부모가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아 정확한 나이도, 신분도 확인할 수 없는 소년 자인. 영화는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음료수와 껌을 팔거나 구걸을 하고, 무책임한 부모의 폭언과 폭행 아래 학대받으며 아동으로서의 인권은 무시된 채 기구한 삶을 살아낸 자인의 일생을 따라간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모습을 담은 이 영화는 단순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수많은 '자인'이 살고 있는 레바논의 현재를 그리고 있다.
제71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으며, 제48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관객상, 제29회 스톡홀름 국제영화제 최우수각본상 등을 수상했다.

피리어드. 엔드 오브 센텐스. (Period. End of Sentence., 2018)

다큐멘터리 | 2018 개봉 | 미국 | 26분
감독 레이카 제타브치



힌두교에서는 월경 중인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여겨 여성들은 월경 기간에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집 밖으로 쫓겨나기도 한다. 인도 델리의 한 마을 역시 월경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불경스럽게 여기는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의 여성들은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생리를 할 때면 외출은커녕 학교에 등교조차 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침해받거나 건강상의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곤 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한 채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생리대를 만드는 기계가 들어오고, 여성들은 직접 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들이 만든 생리대를 판매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등 생리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바꿔나간다. 월경이라는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억압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결혼 풍습으로 살펴보는 세계 각국 '부부의 세계'

글 남지연



아랍 국가

오늘부터 방 빼!

고대 아랍 여성들은 연애와 결혼에 매우 당당했다. 그들에게는 남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여자가 직접 청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대 아랍 사회에서는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 경우 결혼 생활의 주도권은 당연히 여자가 쥐게 된다. 이혼의 권한도 여자가 쥐게 되고, 자식의 양육권도 여자가 가졌다. 당시 여자들은 이혼을 원한다는 표시로 함께 살던 천막 입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예를 들어 천막의 문이 동쪽에 나 있는 경우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놓은 것이다. 이를 본 남편은 이혼당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천막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후, 이슬람 세력이 강해지면서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된 결과 축첩 풍습이 생겨나고, 여성들의 지위가 격하되었다.

르완다

'소규모 일부다처제'가 뭐야?

르완다 전통 사회에서는 일부일처제가 일부다처제보다 보편적이었다. 일부다처인 경우에도 많게는 50여 명의 부인까지 둘 수 있었던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최대 4명의 부인을 두는 '소규모 일부다처제'를 선호했다. 한 남자가 둘 혹은 그 이상의 여자와 혼인하는 '동시적인 일부다처제'보다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혼인하고, 그 부인과 헤어진 후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연속적인 일부다처제'가 더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일부다처제는 미혼 여성들의 노동, 경제 제도, 교육, 의식 변화 등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고, 현재는 각 시민을 보호하고 여성해방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일부다처제가 실천될 수 없다고 여겨 오늘날 르완다에서는 일부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터키

소금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터키는 법적 혼인 연령을 1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장의 결정과 승인 아래 조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교육과 군 복무 기간, 안정된 직업 선택 등의 문제로 평균 혼인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중매결혼보다 연애결혼을 선호해 남녀 당사자들 스스로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터키에서는 아직까지 중매결혼이 많은 편이다. 대부분 남자 쪽에서 신붓감을 고르고 중매를 보낸다. 이후 남자 쪽에서 청혼을 하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터키의 가장 대표적인 풍습인 '터키 커피'다. 신붓감이 손님들에게 터키 커피를 끓여 주는데,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거나 아예 설탕 대신 소금을 넣기도 한다.



참고 문헌

김정명, “아랍인의 혼례 풍습”,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동연구소, <중동연구>, 22권 2호, 2003.
허용선, “세계의 결혼 풍속”,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Vol.30 No.2, 2006, pp.34-36.
유재명, “흑아프리카 전통 가족 제도의 특징”,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제45집, 2016.
괵셀 튀르쾨쥬, “터키와 한국의 혼인 풍습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43권 43호, 2010, pp.27-37.

세네갈에서는 바람이 무죄!

세네갈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부다처제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나라, 일부다처제를 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세네갈이다. 전통 사회에서 일부다처제가 시행된 까닭은 종교와 노동력 때문이었다. 일부다처는 경제 및 노동력 제공의 관점에서 아이와 여자들을 특별한 가치로 인식했다. 게다가 전체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도인 세네갈에서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쉽게 용인되지 않는다. 이슬람 사회에서 독신으로 산다는 것과 자식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사회적 수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로 여자들은 보통 20세 이전에 혼인을 하는데, 또래 남자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과의 혼인적령기 차이로 재산이 많은 남성을 중심으로 일부다처제가 성행하고 있다.

여성은 생명의 근원

마다가스카르

토속 종교의 영향으로 일부다처제를 추종한 나라로는 마다가스카르를 들 수 있다. 이 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여자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소유자’라는 종교적 믿음에서 기인했다. 따라서 하나의 집단에 삶의 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단의 삶이 발전한다고 믿었다. 집단의 생명을 확대하기 위한 근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일부다처제의 세계관이었던 것이다. 관습에 따르면 첫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으로서 지위와 관련한 이권을 계속 유지하는 한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는 것에 반대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같으면 어머니가 달라도 모든 아이가 형제로 여겨졌고, 그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했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의 응집력을 위협하고 전통에 기인한 제도라는 이유 등으로 일부다처제가 꼭 필요한 제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일부다처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달걀을 던지는 게 덕담이라고요?

이집트

이슬람교를 믿는 이집트 남자들은 원칙적으로는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부일처로 살아간다. 많은 부인을 두려면 돈이 많아야 하므로 일부다처는 부자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결혼하기 위해 이집트 남자들은 준비할 것이 많아 결혼 연령이 30세가 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여자들의 결혼 연령은 낮아 이집트 부부들은 나이 차가 큰 편이다. 21세가 넘으면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연애결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부모의 중매로 결혼하는 중매결혼이 일반적이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일을 으뜸으로 여기는데, 어떤 곳에선 암탉이 알을 많이 낳듯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뜻으로 신부에게 달걀을 던지기도 한다.

세계에는 맛있는 초코 과자가 너무 많습니다. 먹어볼 것은 많은데 다 먹어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Together KOICA>가 전 세계의 달달한 초코 과자를 먹어보고 맛을 평가해봅니다. 이 기사를 본 뒤 초코 과자를 사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세계에는 어떤 달달함이 있을지 세계 과자를 판매하는 세계 과자 판매점으로 가볼까요?

글 김영주 사진 정현규

세계 과자 대전

맛있는 세계 초코 과자를 찾아서!



말레이시아 초코크림쿠키

초코가 흘러내린드아아아. 차갑게보다 따뜻하게 먹으면 더 맛있다. 열량 보고 멈칫하게 되는 악마의 과자.



인도네시아 니신와퍼 초콜릿

질소 충전 과자가 무엇? 가성비 굿! 빈틈없이 꽉 찬 천사 같은 과자, 초코 맛은 조금 약하다.



말레이시아 렉서스 초코크림샌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짠 조합! 그러나 초코 맛이 더 강했으면 하는 아주 조금의 아쉬움?



인도 야미 초콜릿 향 비스킷

많이 달지 않아 더 좋지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 비스킷 식감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 먹어봐도 좋을 듯!



인도네시아 게리크래커 초콜릿

명불허전 게리크래커! 그러나 게리 덕후 사이에서는 '역시 코코넛이 짱이네!'가 여전.

BONUS



공정무역 EQUAL 초콜릿

★★★★★

좋은 카카오가 자랄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페루에서 수확한 카카오에 사탕수수 설탕과 우유만을 넣어 만든 비건 초콜릿. 정당한 가격 지불과 공동체 지원을 통해 카카오 농부들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정무역' 제품이다.

<구매처>

온라인 아름다운커피 온라인쇼핑몰(www.beautifulcoffee.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톡 선물하기/스토어, SSG닷컴, 인터파크

오프라인 아름다운가게, 주요 생협(한살림, 두레생협 등), 스토어 36.5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KOICA


KOICA
한국국제협력단